

안 그래픽스 인쇄 · 사진 · 디자인 안희탁 스테파노 404-717-9897 ahngraphix@gmail.com	구나영 보험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생명보험 새로이 65세 되시는 분 타주에서 이사오신 분 구나영 아가다 678-665-4228	리 장례식장 Lee's Funeral Home & Crematory 이국자 770-401-7616 귀 넷 770-622-2525	PIWC Group Agency 자동차 · 집 · 사업체 · 중업원 상해 보험 장인옥 베드로 404-644-8658	SB 건축&철공 House 내부수리 일체 철구조물 수리 제작 방성호 크레센시오 678-599-0200	오즈 냉 동 에어컨 · 히팅 · 냉동 원동훈 유스티노 770-910-5656							
AAA Insurance 이창호 보험(바오로) 자동차/주택/메디케어 678-910-0884 2628 Pleasant Hill Road #700 Duluth, GA 30096	SMILE 1 DENTAL GROUP 스마일원치과 김세희 소화테레사 김상윤 요셉 678-835-9550 1120 Peachtree Industrial Blvd #203, Suwanee, GA	Brighter Smiles 잔스크릭 치과 www.brsmilestdmd.com 470-719-0213 7775 McGinnis Ferry Rd Ste 202, Johns Creek, GA	미소 치과 남상우 시몬 남수진 세실리아 770-814-7533 4195 Pleasant Hill Rd #200,	RIVERBEND Tire & Auto Service, Inc. SONAMOO 소나무 Auto Repair 리버밴드 오토 변대건 안드레아 404-663-7984 Office 770-623-5940 3322 Peachtree Industrial Blvd, Duluth, GA 30096	ALFONE LIFE FINANCIAL & INSURANCE SERVICE 메디케어 / IRA / 연금 생명보험 / 오바마케어 한재만 그레고리오 404-272-6157	JOYNUS CARE 간병인 수시 모집 김경숙 소화테레사 404-457-6703 3120 Crossing Park NW, Norcross, GA 30071 / info@joynuscare.com	FARMERS INSURANCE 로렌 배 보험 (모니카) 자동차/집/사업체/건강 470-282-1654 3775 Venture Dr. #M202	배용자 루시아 보험금융 생명보험 건강보험 은퇴연금 장기간호보험 뮤추얼펀드 678-665-5400 3720 Davinci Court, Suite#150 Peachtree Corners, GA 30092				
Peachtree Physical Therapy 피치트리 물리치료 클리닉 470-238-3683 1300 Peachtree Industrial Blvd #4108 정토니 안토니오	더조은 척추 운동상해(골프, 테니스 전문) 및 교통사고 박찬규 레오 678-473-0552 6630 McGinnis Ferry Road Suite B, Johns Creek, GA 30097	만 천 흥 명품중식 레스토랑 신자분 5인이상 10% 할인 우대 770-454-5640 매주 월, 화요일은 쉽니다.	김옥경 에밀리 부동산 M. 770-912-8282 O. 404-843-2500	kw KELLERWILLIAMS. 오현정 유리안나 부동산 Juliana OH 678-908-4945	SINCE 1999 VINEYARD REALTY ·시니어 주택전문 (Seniors Real Estate Specialist) ·사업용 건물 ·토지 부동산 전문인 조셉 김 678-361-6230 켈리 김 770-634-5646	Pinehill Realty 조앤리 아네스 부동산 678-770-1136 realtorjoanne@gmail.com	정승욱 미카엘 변호사 Law Office Of Michael S. Chung, LLC 이민 · 입양 · 클로징 · 상법 · 유언 2174 Pleasant Hill Rd #204C Duluth GA 30096	오약국 모든보험 수령 / 저렴한 약값 470-223-4775 오민환 파비아노 10820 Abbotts Bridge Rd, #240	Fairway Home Loan *주택융자 *상업융자 최윤석 융자 404-578-1426 3483 Satellite Blvd Ste 201S, Duluth, GA 30096	교통사고 상해 이종원 미카엘 변호사 무료상담 678-622-8829 jwlee@jwleelaw.com 3483 Satellite Blvd #211S, Duluth (파리바게트 맞은편)	TOP 조정 Lawn Maintenance 잔디관리 전문(가정, 상업용) 남기원 요한 404-966-1919 2547 Old Rockbridge Road, Norcross, GA 30071	GIFTS GOLD · CROSS · REPAIRS ·십자가, 성상 ·성화, 목주, 책 ·신발수선 ·금, 은, 주문제작 ·타-셔츠 프린팅 성물점 770-614-1738 3255 Lawrenceville-Suwanee Rd. #L, Suwanee, GA 30024

순교자 주보



이탈렌티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2024년 1월 21일

NO.2235

주임신부 구동욱 미카엘 kmccga.pastor@gmail.com | 보좌신부 김성현 라파엘 raphaelkimsj@gmail.com
 사목회장 남현석 요셉 Email: josephnam2011@gmail.com Tel: 770.827.9987
 전화 770.455.1380 | 팩스 770.455.4262 | Email kmccga.office@gmail.com
 주소 6003 Buford Hwy. NE., Doraville, GA 30340 | URL http://www.kmccga.com



<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부르심 > 두초 디 부오단세나, 워싱턴 국립미술관, 미국.

연중 제 3주일(하느님의 말씀 주일)

미사 시간 안내

성 가	입당: 49	봉헌: 511, 512	성체: 186, 498	파견: 21
제1독서	요나 예언서 3,1-5.10 니네베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섰다.			
화답송				
제2독서	코린토 1서 7,29-31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			
복음	마르코 1,14-20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일미사	
청년미사(토)	5:30pm
아침미사	8:30am
교중미사	10:30am
영어미사	12:15pm
평일미사	
화요일, 금요일	12:00pm
수요일, 목요일	7:30pm
월간미사	
성모신심미사	첫째주 토요일
◆ 고해 성사: 미사 시작 30분 전 ◆ 성시간: 목요일 저녁 미사 후 ◆ 사무실: 일요일 7:00am-3:00pm 월요일 휴무 화-토 10:00am-6:00pm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거듭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렘니 4.4

주보 광고 문의
 kmccga.jubo@gmail.com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르코 1,14-20)

새롭게 한걸음

배영길 베드로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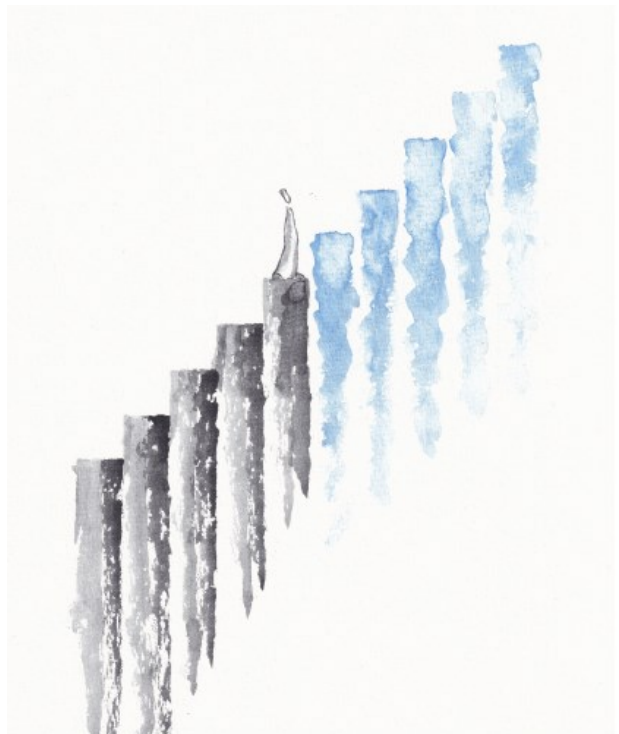
걸어오던,
그런 길이 아니야.

살아오던,
그런 삶이 아니야.

이젠,
새롭게 시작해야 해.

이젠,
새롭게 사랑해야 해.

새 세상에서.



몇 주 전에 한국에서 유명 배우가 자살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주연 배우로 나왔던 매우 잘 생기고 멋있던 배우였는데 마약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그런 사실이 신문에 나고 SNS에 유포가 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한다. 남의 일을 쉽게 함부로 말하고 싶지 않지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치루고 많은 것을 내려 놓고 새로 시작해도 되는데 그게 그렇게도 어려웠나 보인다.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이라 더욱 심했을 거라 생각은 듭니다. 평범한 인생을 살면서도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깊은 좌절과 어두움에 빠져 허우적거렸던 경험을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들 마음 속으로 파고 들어 온갖 유혹을 던집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사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소름이 끼칩니다. 영적으로 보다 성숙하고 강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를 해 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세례 받고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신 후 첫 전도를 시작하시며 던진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여러 해석이 있었지만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첫 발걸음이 무엇인지 알려 주십니다. 회개하라, 회심하라라는 말은 추상적인 단어가 돼서 그리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 그러는지? 스스로 되물어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야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유다 왕 헤로데는 좋은 목상 거리를 줍니다. 그는 예수님을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자기보다도 더 존경해 주고 떠 받쳐 주는 야기 예수에 대해 시샘과 질투를 넘어 죽이려고 했고 또래 애기들 까지 모조리 죽여 버리는 잔인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늘 올라가고 썩어지고 커지고 해야만 안정감을 얻으며 사치와 허영심에 파묻혀 산 매우 비참한 인물입니다. 그 안에 하느님은 아예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밖에 없는 매우 육적인 인물입니다. 사탄에 완전히 사로잡힌 인간입니다. 현대 ‘헤로데’만 그럴까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고 간에 ‘헤로데’ 속성의 조각들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한 모든 가정, 회사, 교회 국가 공동체 안에서 늘상 갈등과 다툼이 생깁니다. 이런 게 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분실해서 생겨난 현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고집과 신념으로 사는 것 보다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바라는 회개의 삶이 아닐까요?

[성 찰]

예수님은 늘 우리를 바라 보고 계십니다.
무엇이 예수님에게 다가 가는데 걸림돌이 됩니까?

교황, 하느님의 말씀 주일 제정

교회가 매년 연중 제3주일을 ‘하느님 말씀의 주일’로 지내게 된다. 사랑 안에 다시 태어나기 위해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항상 쇄신할 수 있도록 하느님 말씀이 갖는 구원과 부활의 의미를 재발견하기 위해 특별하게 지내는 날이 될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의 교서 형태로 발표한 교황 교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Aperuit illis, 아페루이트 일리스)를 통해, “연중 제3주일을 하느님 말씀의 거행, 성찰 및 보급에 할애하도록” 정했다. 이 문헌은 ‘성 예로니모 사제 학자 기념일’인 9월 30일에 반포됐다. 올해로 선종 1600주년을 맞이한 예로니모 성인은 성경을 (대중) 라틴말로 옮긴 뛰어난 번역가였으며, “성경에 대한 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해하도록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교황은 자비의 특별 희년을 마무리하면서 이미 생각했던 이 계획이 하느님 말씀의 주일을 제정하도록 요청했던 수많은 신자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황 교서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루카 복음서의 구절로 시작된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aperuit illis)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루카 24,45).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실망했던 제자들에게 부활 신비의 의미를 계시해주십니다. 곧, 성부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예수님께서 회개와 죄의 용서를 위해 고난을 겪고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 구원의 신비의 증인이 되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하느님 말씀을 재발견하기

교황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 헌장 『하느님의 말씀』(Dei Verbum)을 통해 하느님 말씀의 재발견에 큰 자극을 주었고, 베네딕토 16세 전임교황이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하느님 말씀”이라는 주제로 지난 2008년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를 소집한 뒤 후속 권고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 불가피한 가르침을 이루는” 『주님의 말씀』(Verbum Domini)을 썼다고 떠올렸다. 이 문헌은 “특히 전례행위에서 성사적인 특성이 부각될 때, 하느님 말씀의 수행적 성격이 심화된다”고 말하고 있다(교황 권고 『주님의 말씀』, 56항 참조).

일치를 부추기는 말씀

하느님 말씀의 주일은 히브리인들과 결속을 강화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일치성을 위해 기도하도록 초대하는 기간에 자리잡게 된다고 교황은 강조했다. “우연히 시기적으로 겹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 말씀의 주일을 거행하는 것은 교회일치적 가치를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실되고 확고한 일치에 도달하기 위해 따라야 할 여정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말씀의 주일을 어떻게 거행할 것인가

교황은 이 주일을 “엄숙한 날로” 지내길 권고한다. “성찬례 거행에서 하느님 말씀이 갖는 규범적인 가치를 회중에게 분명히 보여줄 수 있도록, 성경을 중심에 모시는 것(intronizare)이 매우 중요합니다. (...) 주교들은 전례에서 하느님 말씀의 선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이 주일에 독서적 수여식을 거행하거나 유사한 성무를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일부 신자들이 적합한 준비를 통해 하느님 말씀의 참된 선포자가 되게 준비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 분당 신부들은 일상생활에서 성경을 통해, 렉시오 디비나(거룩한 독서)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통해, 성경의 독서 및 심화와 기도의 중요성을 부각할 수 있도록 모든 회중에게 성경 전체 혹은 성경 일부를 전달하기 위한 형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소수 특권층의 소유가 아닌 하느님 백성의 책

“성경은 단지 일부 사람들의 유산이 아니며, 소수 특권층을 위한 서적의 모음집은 더더욱 아닙니다. (...) 종종 일부 단체나 엘리트 그룹에게 귀속시키며 거룩한 말씀을 조작하려고 애쓰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경험함으로써 흠여짐이나 분열에서 일치로 넘어가는 주님 백성의 책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신자들

을 일치시키고 하나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성경을 설명하기 위한 강론의 중요성

교황은 이 기회에 강론 준비의 중요성도 다시금 강조했다. 사목자들은 “듣는 이에게 적합하고 쉬운 언어로 (...) 성경을 모든 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큰 책임이 있습니다. (...) 사실 우리 신자들 대부분에게 이번 기회는 하느님 말씀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각자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 거룩한 말씀에 대한 설명을 아무런 준비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설교자들에게는 무엇보다 학문 위주의 강론이나 이질적인 주제로 정도를 넘어 (강론을) 길게 늘리지 말아야 할 책임이 요구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 잠시 멈출 때, (강론을) 듣는 이들의 마음에 도달하기 위해 진심을 다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와 구원 사이에 놓인 성경의 본질

교황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사화를 떠올리면서 “성경과 성찬례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지” 강조했다. 아울러 “성경에 대한 구원의 목적, 영적인 차원과 육화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 헌장 『하느님의 말씀』의 몇 구절을 인용한 뒤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경은 역사서나 연대기의 모음집이 아니라 순전히 인간의 완전한 구원을 향해 있습니다. 거룩한 말씀 안에 포함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뿌리는 이러한 근원적인 목적, 곧 우리의 구원을 망각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러한 목적을 위한 것이며, 성경의 본질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곧 하느님께서 모든 인간을 만나시고 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구원의 역사로 끝지어진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근본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성경은 성령의 활동 아래 인간의 방식으로 쓰여진 인간의 말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성경 안에 있는 성령의 역할은 근본적입니다. 성령의 활동이 없다면 근본주의적 해석에 빠지거나, 글로 쓰여진 텍스트 안에 갇히는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거룩한 말씀이 지닌 영감을 주고, 역동적이며, 영적인 성격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근본주의적 해석을 멀리해야 합니다. 사도 바오로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2코린 3,6).’”

성경적 신앙은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에 토대를 둡니다

교황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조건과 더불어, 하느님 말씀과 인간의 말의 관계에 형태와 의미를 부여하시는” 하느님 말씀의 육화신비에 대해 설명하면서 “성경과 성전(聖傳) 두 가지가 모두 계시의 유일한 원천임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는 종종 성경과 성전을 따로 분리하려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성경적 신앙은 “책(성경)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쓰여진 성경을 성령의 빛 안에서 읽을 때 항상 새로워집니다.” 이와 같이, “매일 하느님의 말씀으로 길러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만나는 사람들과 동시대인이 됩니다. 과거에 대한 황량한 향수에 빠지거나 미래에 대한 실체 없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사랑 안에서 살아야

교황은 “절대 하느님 말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타성에 젖어 익숙해지지 말라)”고 권고했다. 하느님 말씀은 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 안에서 살도록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아버지의 자비로운 사랑을 떠올립니다. (...) 하느님 말씀은 질식과 메마름으로 이끄는 개인주의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고 나눔과 연대의 길을 활짝 열어줍니다.” 교황의 교서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의 참된 행복을 가르치면서,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정에” 우리를 동반해 주시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언급으로 마무리된다.

번역 이창욱 <출처: 바티칸 뉴스>



주일학교 교사 워크숍

1월 12일(금)~14일(일) 알파레타에 있는 다니엘 기도원에서 주일학교 교사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구역분과 주일 점심 봉사

1월 14일(일) 구역분과에서 주일미사 후 점심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수고해주신 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비자 교리반 수업

푸리아 1월 월례회의

왕 노아 유아세례



성당 지붕 교체 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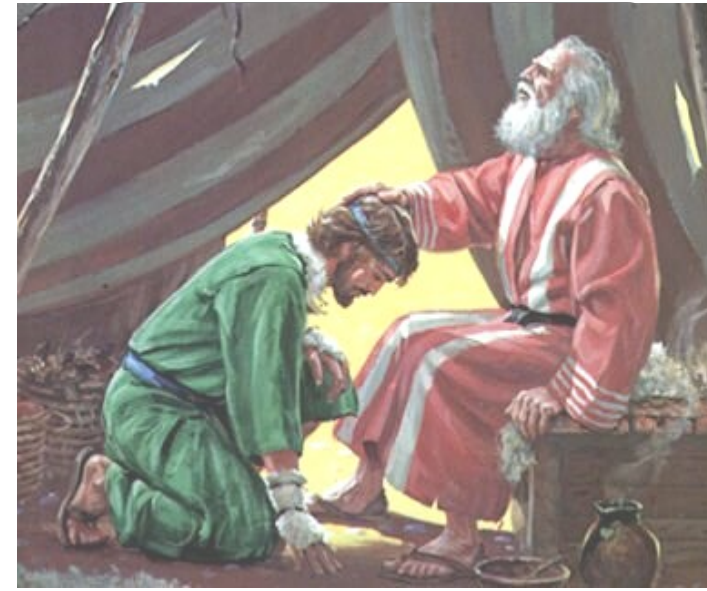


청년미사 후 식사



한국, 일본 성지순례 접수

거짓말도 당당한 사기꾼, 야곱



한편, 에사오가 사냥에서 돌아와 허기가 졌을 때 야곱이 끓이고 있는 붉은 죽을 보고 조금만 달라고 사정합니다. 야곱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야곱은 죽을 주는 대가로 장자권을 자신에게 팔라고 합니다. 상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이용하는 야곱의 기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도 야곱은 자신이 에사오인 것처럼 위장하고 하느님의 이름을 파는 거짓말을 서슴지 않은 끝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 합니다.(창세 27,19-20)

야곱은 자신을 해치려는 에사오를 피해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에 비해 한 수위였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마음을 간파해서 자신의 두 딸, 라헬과 레아와 맺을 결혼을 미끼로 아주 오랫동안 그를 자신의 곁에 붙잡아 놓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라반에게 당하는 입장으로 바뀌자 억압된 분노가 마음에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식솔과 재산을 챙겨 고향으로 몰래 돌아갈 때 라반은 뒤쫓아가 야곱을 붙잡습니다. 그때 야곱은 억눌려있던 감정들을 쏟아냅니다.

“신부님, 우리나라에서 어떤 범죄 사건이 가장 많은 지 아세요?”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한 변호사가 저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혹시 폭행? 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범죄는 사기예요.” 사기가 나쁜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믿음을 기만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망 때문에 소중한 사람과 맺은 인연을 잃기 십상입니다.

야곱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나 세속적인 삶 모든 것에서 열정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쌍둥이 형제 에사오는 야곱과 태어날 때부터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신체적 특징은 물론 내면적으로도 에사오가 외적인 열정이 있는 외향적인 인물이었던 반면, 야곱은 조용하고 신중하게 지내는 내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성격도 너무 달랐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버지 이사악은 사냥을 잘하는 에사오를, 어머니 레베카는 조용하고 신중한 야곱을 더 마음에 두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의 편애는 형제가 성장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의식을 과열시키고, 자녀들이 예상하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전혀 인지 하지 못해도 형제자매들을 서로 비교하거나 편애하는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부정적인 상처를 안겨주고 평생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려는 욕심이 지나치면 인간은 거짓과 기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을 때 두려움은 가졌지만, 죄책감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이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외삼촌 라반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야곱은 그간 자신의 행동도 모두 합리화하고 자신이 정당하다는 논리로 무장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더 큰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기에 거짓말을 할 때도 별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거짓말이 나쁜 것은 어느새 나쁜 습관이 되어 버리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정당화 시켜 공감도 못한다는 것입니다.(창세 25,19-33,20 참조)

허영엽 마리아 신부 |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출처:서울주보>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4년 1월 14일 (연중 제2주일)

교중미사(10:30am)...	265명	주일헌금	\$4,842.00
아침미사(8:30am)...	78명	교무금	\$3,770.00
영어미사(12:15pm)...	74명	감사헌금	\$.00
청년미사(5:30pm)...	58명	청소년 기금	\$.00
미사참여 총	475명	성물방	\$151.00

교무금 명단

고근배(12/23, 1/24)	박평하(1)	왕복실(1)	정민주(1)
김경숙(1)	변성주(1)	이건수(1)	정복순(1)
김국환(1)	서재욱(1)	이남순(12)	조기영(1)
김용준(1)	손영덕(1)	이석균(1)	주옥녀(1)
나영숙(1)	손철영(1)	이승구(1)	최춘명(1)
남명애(1)	송경자(1~12)	이승희(1)	홍서훈(1)
남현석(1)	송용덕(1)	이종상(1,2)	
박송자(1~4)	심문영(1)	이준복(1)	
박종흥(1)	양희영(1)	이창호(1)	

교무금 월 약정자

강규상	김영홍	박근우	서동민	안금환	윤성진	이홍철	최양숙
강성태	김원봉	박남준	서미영	안승범	이건수	장민재	최영갑
강용조	김일환	박남철	서상희	양경직	이경우	장해선	최옥란
고창민	김주희	박두환	서용원	양경환	이동춘	전 홍	최지남
곽흥배	김진용	박두환	서재욱	양국일	이복화	전근섭	한성인
김 훈	김태규	박미헬	서혁규	양재준	이봉조	전용희	한춘하
김경숙	김향순	박송자	석대진	오경옥	이석균	정승욱	한혜선
김남우	김현길	박영자	석대진	오규형	이성철	정용선	허민환
김대용	김호수	박재석	설재규	오상수	이수진	정지윤	허성일
김태시아	김홍섭	박재영	성정창	왕복실	이종길	조보현	홍동욱
김면기	김희연	박정미	소종선	원동훈	이주미	조성환	홍서훈
김미자	나창섭	박종흥	손영덕	원용방	이창호	조소춘	홍영기
김미혜	남기원	박찬규	손철영	유경애	이준복	지승남	
김봉섭	남상우	박평하	송경자	유선아	이현두	차영수	
김상순	남현석	방영택	송무남	유성열	이현욱	천병호	
김성강	문명재	배광욱	송용덕	유영환	이홍규	최동순	
김세경	민병선	배정울	송창률	유중현	이홍규	최문성	
김영길	민수종	배정희	심충섭	유석진	이홍규	최문영	
김영철	민주미	백현숙	심호용				

교무금 새로 약정 하신 분

강비호 민수종 심재숙 이강연 임용택 한규빈
 김덕자 박경미 오명혜 이길종 임재형 한규항
 김용준 박병호 오재찬 이동선 장윤아 한찬욱
 김용학 서영범 우장희 이은경 차유경 현무경
 도한익 석영길 유경애 이창욱 최규복 홍남식
 문쌍국 스티브조 윤지영 이치선 최혜민 홍상진

교무금 약정하신 분중에 신자번호가 없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신자번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역미사

1/26 (금) 6:00 pm

피치 라즈웰 구역
 이홍규 벤자민 770-490-0384
 이경미 다이안나 770-490-0384

2023년 AA 기금 납부 현황

2024년 1월14일 (연중 제2주일)

교구 할당액.....	\$ 44,200.00
달성률	125.8%
약정액	\$ 35,790.00
누계 납부액.....	\$ 55,605.00
금주 납부액.....	\$ 1440.00

2023 AA 기금 납부자

김봉섭	박근우	이승구
김상순	박연순	이종상
김용준	박정애	한찬욱
김희연	원동훈	
문쌍국	이수진	

금주 후원금 감사헌금

교무금/ AA 기금 약정/ 봉헌 안내

- 교무금 약정서를 사무실로 제출
- 교무금 내실 때 월 표시, 이름, 신자번호를 기재
- 2023년 AA기금 약정도 사무실에 문의
- 온라인 봉헌시 이름, 신자 번호, 봉헌 내역 기재
- 생미사, 연령미사 봉헌은 우편으로 미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례 봉사

날짜	해설	독서	복사
1/20(토) 오후 5:30			
1/21(일) 오전 8:30	서정원	최인영 남송은	양다해 소현서 허수인
1/21(일) 오전 10:30	이경환	김대용 김월수	안상우 이재후 홍지아
1/21(일) 오후 12:15	김태훈	김매튜 배운슬	양다원 박시현 김민지
1/27(토) 오후 5:30			
1/28(일) 오전 8:30	서정원	김대용 김월수	양다현 성리디아 이윤후
1/28(일) 오전 10:30	박미헬	고근배 고숙영	김아론 김서중 김소현
1/28(일) 오후 12:15	Louise (SaraPark)	장근우 AngelaHa	김매튜 남소호 한예성

본당 캘린더

1월 28일 • 뉴난 공소 미사

설날 합동 연령미사 및 상차림 예정
 상차림 예정이 미사 15분전에 있습니다.
 • 2월 10일(토) 5:30pm
 • 2월 11일(일) 8:30am/10:30am

재의 수요일 미사 안내
 미사중 재의 예식이 진행됩니다.
 • 2월 14일(수) 10:30am/7:30pm

초 축복
 가정초 축복을 원하시는 교우분들께서는 초를 교중 미사 15분전까지 제대 앞으로 가져오십시오.
 • 1월 28일(일) 오전 10시 30분 미사전

성지가지 회수
 1월14일(일)~2월11일(일)까지 성지 가지를 회수 합니다.
 • 장소: 성당 입구 및 사무실

예수회 후원금 Tax Report 발송 안내
 2023년 예수회 후원금 Tax Report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주소와 이름을 Text로 보내 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서정원 (678-779-4865)
 • 참고로 USA Midwest Jesuits로 직접 보내신 분들은 별도로 받으실겁니다.

망치회 김밥,커피라면 판매
 • 일시: 1월 21일(일) | 장소: 친교실
 • 문의: 원동훈 770 910-5656

등대회 1월 정기모임
 • 일시: 1월 21일(일) 12:15pm | 장소: 성당 112호
 • 문의: 이경우 빈첸시오 678-644-7341
 중요 토의 안건이 있사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빛과 소금 신년 모임
 • 일시: 2월 2일(금) 6:00~11:00pm
 • 장소: 1055 Winding Bridge Way Johns Creek, GA 30096 (사제관)
 • 문의: 최남주 베드로 248-761-2693

미국 백세시대 은퇴 계획과 상속, 절세에 관한 세미나
 • 강사: 이상엽 시릴로 CPA
 • 일시: 1월21일(일) 12:30pm | 장소: 소성당
 • 대상: 은퇴를 계획하고 계신 교우 분
 • 주최: 사회복지재단
 • 문의: 박정미 로시타 901-832-3306
 서정화 인덕마리아 404-547-4595

성당 지붕공사 일정 안내
 • 1월4일: 자재 배달
 • 1월8일(월)부터 2주간 공사를 진행

사랑의 손길
 • 페이스 수술을 해야하는 Julie Kim 자매님에게 많은 도움이 손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Gofund.me Link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https://gofund.me/a41b0008

본당 알림
 • 성가대원 및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이정란 안젤라 770-401-5374
 • 장례 미사 및 연도 요청은 연령회에 연락바랍니다. 문의: 이수진 브렌다노 404-933-8233
 • 혼인 성사를 요청하는 경우 6개월 전에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 보관 중인 연도책은 사무실로 반납 바랍니다.

2023-24년도 청년 예비신자 & 견진 교리반 모집
 가톨릭 신앙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 접수: 사무실 & 청년회장단
- 수업기간: 2023/10/21- 2024/3/30(부활절)까지 (견진 수업: 1월 27일부터 최소 6회 이상 수업 참여자)
- 수업시간: 매주 토요일 3:45pm- 5:00pm
- 수업 외 일정: 분당 입교식, 선발식, 세례 견진 성사, 환영식
- 대상: 18세-39세 청년 (39세 이하 자녀없는 부모 포함)

2024년도 로사리오 평생 대학 새학기 등록

- 등록 일시: 12월 17일부터
- 등록 장소: 친교실/성당 사무실
- 새학기 개강일: 2024년 1월 10일
- 문의: 이수자 크리스티나 678-665-3882
 서미영 아네스 404-610-0057

2023-2024년도 주일학교 등록

- 등록대상: Pre-K ~ 12학년
- 수업기간: 1월21일~5월19일(15주간)
- 등록비(일년): 1인 \$100/ 둘째 \$90/ 세째 \$80
- 문의: 이진화 로마나 770-572-4000
 kmccga.youngadult@gmail.com

2023-2024학년도 대건 한국학교 등록

- 등록대상: Pre-K(만4세) ~ 12학년
- 수업기간: 1월13일~5월4일(16주간)
- 수업내용: 한국어, 한국문화/역사
- 특활수업: 미술, 태권도, 동요, 무용, 서예, 난타
- 문의: 노시현 네오미시아 678-677-3515
 kmccga.DaegonKoreanSchool@gmail.com

페루' 비야 엘사바도르' 단기 선교단 모집

- 일시: 5월23일(목) ~ 6월4일(화)
- 신청 인원 및 자격: 대학생~65세 (12명)
- 봉사내용: 노동, 율동, 찬미, 태권도 등
- 문의: 김용준 로마노 770-895-1000

기도 부탁드립니다
 병중에 계신 분들

김미영(인덕마리아)	이기산(스테파노)
김원봉(대건 안드레아)	이금숙(세실리아)
류앵레(세실리아)	이수진(브렌다노)
민병숙(라파엘라)	정병순(안나)
박덕자(빅토리아)	조갑득(마리아)
박정자(테레사)	조경희(글라라)
박종리(히아친타)	채종현(아오스딩)
박평하(요한)	최대일(프레드릭)
안정주(소피아)	최순례(아나타시아)
유옥희(모니카)	

특별한 지향을 위하여
 2024년 세례를 받으실 분들과 견진을 받으실 분들을 위해

2024년 부활 견진반 안내
 가톨릭 신앙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 접수: 사무실
- 수업기간: 2024년 2월4일 -2024년 3월31일(부활절)까지
- 수업시간: 매주 주일 9:00am
- 수업장소: 소성당
- 등록마감 : 2024년 1월 28일
- 문의: 나상숙 스킨라스티카 678-933-7313

청년 피정 날짜변경

- 참가자격: 18세 이상 40세 이하 모든 청년
- 일시: 2024년5월10일(금) 저녁 -12일(일) 낮
- 참가비: \$80 (학생 \$40)
- 회장단이나 오픈채팅방 혹은 인스타그램으로 문의

이나시오 영성 침묵 피정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예루살렘

- 일시: 2024년 2월 7일 (수)- 11일 (주일)
- 장소: Conyers Monastery
- 참가비: \$500
- 인원: 선착순 25명
- 문의 : 박철민 리나 404-510-4605

고등부 겨울피정
 Youth Group 2024 Winter Retreat

- When: 2.16 (Fri) - 2.18 (Sun)
- Where: Glisson Camp and Retreat Center
- Cost: Early Registration (12/10 ~ 12/17) \$175
 Regular Registration (12/18 ~ 1/21) \$195
- Contact: Si Lee 678-779-0923

미 동남부 제13차 성령 안의 성장 세미나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께 나아갑시다"(히브 10,22)

- 일시: 1월 28일(일)오후 3시~1월 31일(수) 오후 3시
- 장소: Ignatius Retreat Center
 6700 Riverside Dr. NW. Atlanta, GA 30328
- 지도: 박효철 베네딕토 신부
 박동순 요셉 신부
- 참가비: \$470 • PAYABLE TO: KCCRSC SE
- 신청 마감: 2024년 1월15일 (선착순 40명)
- 신청문의: 최미영 헬레나 404-918-0424
 오영숙 수산나 404-518-5881